

글로벌 산업구조 재편과 우리의 대응전략

VIP REPORT

원자재가 상승의 부작용 크다

- 원자재 가격 등락 효과의 3대 비대칭성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원, 이장균, 이철선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Tel (02)2072-6238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02-2072-6239)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원자재가 상승의 부작용 크다

- 원자재 가격 등락 효과의 3대 비대칭성 -

Executive Summary i

1. 원자재 가격 상승 현황 및 원인 1

2. 원자재 가격 파급효과의 3대 비대칭성 4

3. 정책적 시사점 8

■ HRI 경제 지표 12

■ 원자재 가격 상승 현황 및 원인

원유와 원자재 가격을 포함하는 Primary Commodity Index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월평균 3.2%씩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 이전 수준보다 빠른 속도이다. 최근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세계 경기 회복 및 풍부한 유동성에 의한 것으로 수요 견인(demand-pull) 형에 해당한다. 앞으로도 원자재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 원자재 가격 파급효과의 3대 비대칭성

원자재 가격은 소비자물가, 기업채산성,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소비자물가는 상승하고, 기업채산성과 무역수지는 악화된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은 상승 시 초래하는 부정적 효과가 하락 시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비대칭성 존재).

첫째, 소비자물가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때 동반 상승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때 반드시 하락하지는 않는다. 이는 소비자가격 경직성으로 인해 한번 오른 가격은 쉽게 하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 함수를 추정한 결과, 원자재 가격 상승 중 일부분은 1개월 선행하여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는 同期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때는 同期 소비자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원자재 가격 상승 시 기업채산성은 악화되지만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채산성은 반드시 개선되지 않는다.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은 기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키지만, 하락할 때는 판매가격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효과가 생산비용 감소효과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채산성 함수를 추정한 결과, 원자재 가격 상승은 기업채산성을 악화시키지만, 하락은 기업채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원자재 가격 상승은 무역수지를 악화시키지만 하락은 반드시 무역수지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은 수입 증가로 이어지는 반면 원자재 가격 하락은 수입 물량을 증가시켜 가격 하락에 의한 수입 감소 효과를 상쇄시키기 때문이다. 무역수지 함수를 추정한 결과, 원자재 가격 상승 시 무역수지 악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하락 시 수지 개선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정책적 시사점

최근 남유럽발 재정위기로 원자재 價의 변동성이 커졌다. 원자재 價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축소하고 가격 하락의 긍정적 영향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첫째, 정부는 원자재 가격 하락분이 물가에 제대로 반영되고 원자재 가격 상승 시 가격 담합과 같은 부정적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비재 유통 구조의 투명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둘째, 원자재 가격이 기업채산성에 미치는 영향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은 고 원자재가에 대비한 원자재 구매의 효율성과 저 원자재가에 대비한 판매량 극대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원자재 가격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원자재 공급의 안정성과 자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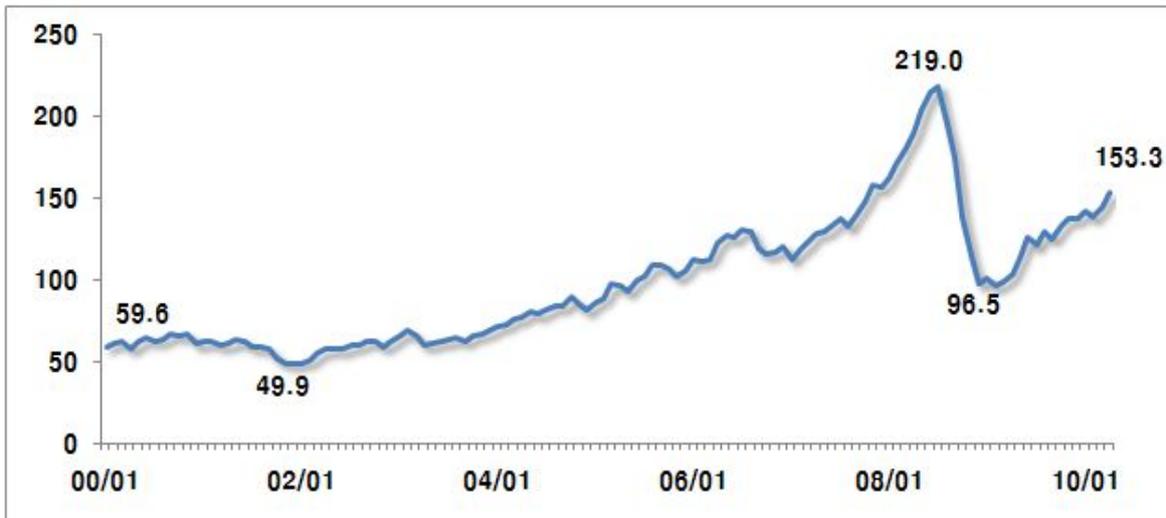
1. 원자재 가격 상승 현황 및 원인

○ 글로벌 경기의 회복으로 원자재 가격¹⁾ 역시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반전됨

- 완만하게 상승하던 원자재 가격은 2007년 이후 급등하기 시작하였으나, 미국 발 서브프라임론 부실 사태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로 급락함
 - 2003년 4월부터 2006년 7월까지 39개월 동안 PCI(Primary Commodity Index)는 월평균 2%씩 상승한데 반해 2006년 10월부터 2008년 7월까지 21개월 동안에는 월평균 3.1%씩 상승함
 - 2008년 8월 이후 하락하여 2009년 2월에는 96.5를 기록함
- 이후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여 경기 침체 이전보다 빠른 수준으로 상승함
 - 2009년 3월 이후 상승하기 시작한 PCI는 2010년 4월 153.3을 기록함
 - 이처럼 최근 PCI의 월평균 상승률은 3.4%로 글로벌 경기 침체 이전 상승률인 3.1%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월별 Primary Commodity Index 추이(2000.1~2010.04) >

(2005=100)



자료: IMF.

1) IMF에서 발표하는 Primary Commodity Index는 원자재 가격을 살펴보는 대표적인 지수로, 원유와 상품을 모두 포함함.

○ 최근 들어 유가와 상품(원유 제외)²⁾ 가격이 급등하고 있음

- 두바이 유가는 2008년 7월 급락 이후 2009년 2월 이후 상승하기 시작함
 - 2008년 7월 3일 배럴당 140.56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던 두바이 유가는 이후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으로 급락하기 시작함
 - 2009년 2월 18일 배럴당 38.23 달러로 저점을 기록한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0년 4월 23일 85.53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2009년 이후 최고치임
- 글로벌 경기 침체로 급락했던 상품 가격은 2009년 3월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이전 수준을 회복함
 - 2008년 3월 3일 483.5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던 CRB 지수는 미국 발 서브프라임론 부실 사태 영향으로 이후 정체를 보이기 시작함
 - 원자재 가격지수는 급락하기 시작하여 2008년 12월 5일에는 298.57을 기록했으며, 이는 2006년 이후 최저치 수준임

< 일별 CRB 지수 >

(1967=100)



< 일별 두바이 유가 추이 >

(배럴 달러)



자료: Reuters.

2) 원자재를 원유와 상품(금속, 섬유, 가축류, 음식료 등)으로 구분함.

○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세계 경기 회복 및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한 수요 증가(demand-pull)에 기인한 것임

- 중국의 높은 경제 성장률에 힘입어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원자재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
 - 중국은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에서 OECD보다 빠르게 벗어나 최근까지 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음
 - OECD의 경기선행지수는 2008년 7월부터 100 이하를 기록했으며, 2009년 3월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9년 10월에는 100 이상을 기록함
 - OECD는 2010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2009년 6월 OECD의 경우 0.7%, 세계의 경우 2.3%에서 2009년 11월 각각 1.9%와 3.4%로 상향 조정함
 - IMF(국제통화기금 :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2010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살펴보면, 2009년 4월에는 1.8%, 10월에는 3.1% 그리고 2010년 4월에는 4.2%로 상향 조정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와 정부의 재정 투입으로 인해 유동성이 풍부해졌고, 경제 회복에 따르는 원자재 가격 상승 기대감이 증가함에 따라 원자재에 대한 투자 수요가 확대됨
 - 2008년 이전 한국, 미국, 유로존의 기준금리는 각각 5%, 4.25%, 4%였으나, 2010년 4월 현재 한국 2%, 미국 0.25%, 유로존 1%로 하향 조정함
 - 또한 글로벌 경기 침체의 부정적 영향인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창출함
 - 이와 같은 저금리와 정부 재정 지출 증가로 유동성은 전 세계적으로 크게 확대됨
 - 확대된 유동성은 금융 시장과 함께 상품 시장으로 투자되어 주가와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특히 경기 회복에 따른 원자재 수요 증가가 확실시 되고 있어 투자자는 고수익률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투기 수요를 창출하여 원자재 가격 상승을 가속화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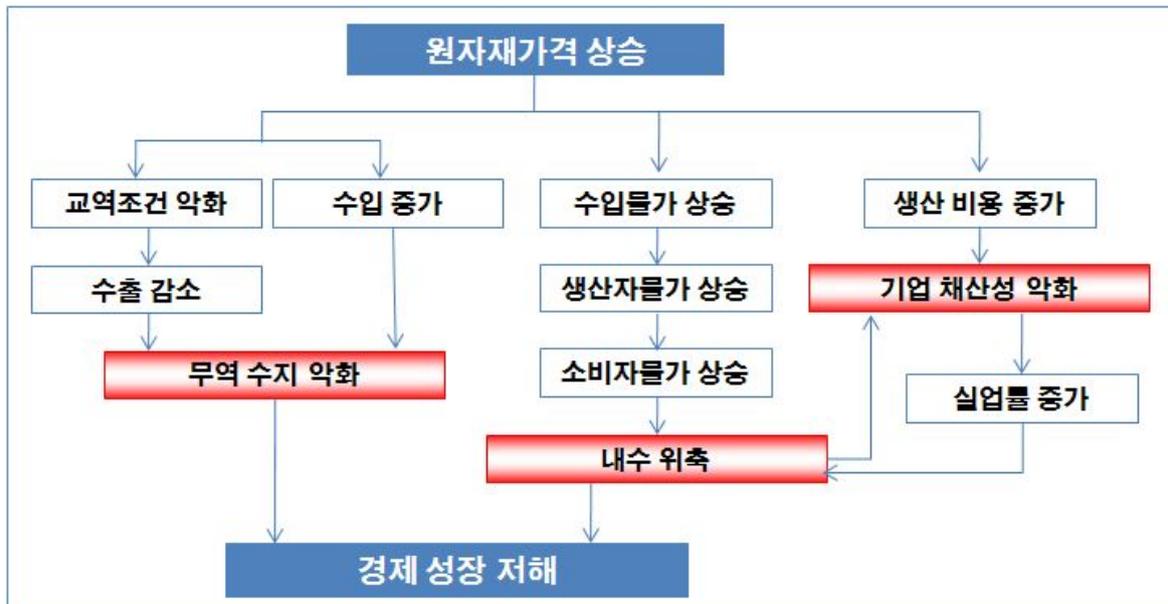
2. 원자재 가격 파급효과의 3대 비대칭성

○ 원자재 가격 상승은 무역수지 악화, 물가 상승, 기업채산성 악화의 3대 부작용을 초래하여 경제 성장을 저해함

- 원자재 가격 상승은 수입 물가를 상승시키고 생산자 물가를 상승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함
- 또한 기업에게 있어 원자재 가격 상승은 직접적으로 생산 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물가 상승에 따른 내수 침체로 매출을 감소시켜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킴
-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 있어 원자재 가격 상승은 수출 가격을 상승시켜 교역 조건을 악화시킴으로써 수출을 줄이고, 수입을 증가시켜 무역수지를 악화시킴

○ 특히 원자재 가격은 하락할 때 긍정적 영향보다 상승할 때 부정적 영향이 큰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큼

< 원자재 가격 상승의 부정적 영향 >



첫째, 소비자물가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때 동반 상승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때 반드시 하락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전년동월대비 원화환산 PCI 변동과 소비자물가 변동은 비례 관계에 있음
 - 2000년 1월 이후 2010년 2월까지 전년동월대비 원화환산³⁾ PCI(Primary Commodity Index) 변동과 소비자물가 변동 간 상관계수는 0.53을 기록함
 -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은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키고, 원자재 가격 하락은 소비자물가를 하락시킴을 의미함
- 원화환산 PCI는 상승할 때가 하락할 때보다 1개월 선행하여 영향을 미치며, 영향 역시 상승 영향이 하락 영향보다 큼
 - 소비자물가 함수를 추정한 결과, 장기적으로 원화환산 PCI는 소비자물가지수와 비례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단기적으로 원화환산 PCI가 상승할 때는 소비자물가에 1개월 선행하여 일부 영향을 미치며 나머지는 동기(同期)에 영향을 미침
 - 반면 원화환산 PCI가 하락할 때는 동기에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화환산 PCI 상승에 의한 소비자물가 상승 효과보다 작음
 - 소비자물가의 하방 경직성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소비자물가 상승효과가 원자재 가격 하락에 의한 소비자물가 하락효과보다 크기 때문임

< 원자재 가격의 소비자물가에 대한 비대칭성 >



3) 원화환산 PCI = 원/달러 환율 × PCI.

둘째, 원자재 가격 상승 시 기업채산성은 악화되지만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고 채산성이 반드시 개선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전년동월대비 PCI 변동과 기업채산성 변동은 반비례 관계에 있음
 - 전년동월대비 원자재가격이 상승한 2007년 9월부터 2008년 9월까지 기업채산성은 악화된 반면 이후 2009년 9월까지 원자재가격 하락 시 채산성은 개선됨
 - 최근 원자재가격과 채산성의 동조성은 경기회복이라는 외부영향에 의한 것임
- 장기적으로 원자재가격과 채산성은 반비례 관계에 있으며, 단기적으로 원자재가격 상승은 채산성을 악화시키지만 하락은 채산성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미흡함
 - 기업채산성 함수를 추정한 결과, 장기적으로 PCI는 기업채산성과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단기적으로 PCI가 상승할 때는 기업채산성을 악화시키지만, 하락할 때는 기업채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생산 비용 증가로 자금 부담이 가중되고 또한 제품 가격에 즉각 반영하기 어려워 채산성이 악화됨
 - 반면 원자재 가격 하락은 제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매출을 감소시킴으로써 생산 비용 감소 효과를 상쇄한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원자재 가격과 매출과의 상관계수(2003년 1월~2010년 2월)를 산출한 결과 0.73을 기록했으며, 이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경우 매출 역시 감소함을 의미함

< 원자재 가격의 기업채산성에 대한 비대칭성 >



셋째, 원자재 가격 상승은 무역수지를 악화시키지만 하락은 반드시 무역수지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전년동월대비 원자재 가격 변동과 상품수지 변동은 반비례 관계에 있음
 - 2000년 1월 이후 2010년 2월까지 전년동월대비 PCI(Primary Commodity Index) 변동과 상품수지 변동 간 상관계수는 -0.58을 기록함
 -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은 무역수지를 악화시키고, 원자재 가격 하락은 무역수지를 개선시킴을 의미함
- PCI가 1 하락할 때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단기적으로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PCI가 1 상승할 때 무역수지의 악화효과는 존재함
 - 무역수지 함수를 추정한 결과, 장기적으로 원자재 가격 지수는 무역수지와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단기적으로 PCI가 1 상승할 때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1 하락할 때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추정치는 유의하지 않음
 -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직접적으로 수입이 늘어나고 간접적으로 수출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수출이 줄어 무역수지는 악화됨
 - 반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경우 낮은 가격에서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수입 물량을 늘리기 때문에 가격 하락 효과가 상쇄되는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때 전월대비 원자재 수입 물량 변동과 수입 가격 변동을 비교한 결과, 상관계수는 -0.05를 기록함

< 원자재 가격의 무역수지에 대한 비대칭성 >



3. 정책적 시사점

- 원자재 가격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축소시키고 가격 하락의 긍정적 영향을 확대하는 원자재 가격 파급 효과의 대칭성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첫째, 원자재 가격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소비재의 유통 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유도해야 한다.

- 이를 위해 원자재와 국내 소비재 가격의 연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임
-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와 가격 인상 담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제재 방침을 마련해야 할 것임

둘째, 원자재 가격이 기업채산성에 미치는 영향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은 매출 극대화과 원자재 구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르는 제품 가격 하락의 매출 감소 효과보다 판매량 증가의 매출 증가 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판매 관리 및 마케팅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주요 원자재에 대한 중장기 조달 계획 수립, 업종별 협회나 단체 등을 통한 공동 구매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장기 공급 계약을 확대하여 원자재 구매의 효율성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임

셋째, 원자재 가격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원자재 공급의 안정성과 원자재 자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원자재 가격이 낮을 때 원자재에 대한 비축 물량을 정부 차원에서 확대하고,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공급이 부족할 때는 비축 물량을 탄력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원자재 비축 및 방출 대책'을 체계화해야 할 것임
- 아프리카 및 남미 등의 자원 보유국들에게 ODA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채굴권이나 개발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원자재의 자급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임상수 연구위원 (happylims@hri.co.kr, 02-2072-6239)

참고. 무역수지, 기업채산성, 소비자물가 추정 결과

① 무역수지 함수

- 장기균형 함수(괄호는 t-value)

$$B_t = -11741.2 + 16.15T_t - 10.37R_t + 3.08E_t + 89.82L_t + \epsilon_{1t}$$

(-2.4) (4.47) (-1.94) (4.27) (1.93)

- 단기 추정식(괄호는 t-value)

$$\begin{aligned} \Delta B_t = & -397.01 - 0.27\Delta B_{t-1} - 0.17\Delta B_{t-2} + 2.96E_t + 3.01E_{t-1} + 1552.22\Delta L_t \\ & (-3.08) \quad (-3.59) \quad (-2.44) \quad (1.91) \quad (1.84) \quad (3.03) \\ & - 1120.68\Delta L_{t-1} - 46.93\Delta R_{t-2}^+ - 0.25\epsilon_{1t-1} - 713.99Jan + 913.90Mar + 616.35Apr \\ & (-2.15) \quad (-1.93) \quad (3.91) \quad (-2.95) \quad (3.52) \quad (2.40) \\ & + 839.68May + 1136.81Jun + 438.04Jul + 1049.94Sep + 680.89Oct + 736.77Nov + v_{1t} \\ & (3.35) \quad (4.63) \quad (1.74) \quad (4.30) \quad (2.66) \quad (2.93) \end{aligned}$$

B_t : t기 상품수지, T_t : 추세더미(1992년 1월=1, ..., 2010년 2월=218),
 R_t : t기 Primary Commodity Index, E_t : t기 원/달러 환율, L_t : t기 OECD 선행지수,
 $\Delta B_t = B_t - B_{t-1}$, $\Delta E_t = E_t - E_{t-1}$, $\Delta L_t = L_t - L_{t-1}$,
 $\Delta R_t^+ = R_t - R_{t-1}$ (if $R_t - R_{t-1} > 0$ otherwise $R_t^+ = 0$),
 $\Delta R_t^- = -(R_t - R_{t-1})$ (if $R_t - R_{t-1} < 0$ otherwise $R_t^- = 0$),
 Jan : 1월 더미, Mar : 3월 더미, Apr : 4월 더미, May : 5월 더미, Jun : 6월 더미,
 Jul : 7월 더미, Sep : 9월 더미, Oct : 10월 더미, Nov : 11월 더미

② 기업채산성 함수

- 장기균형 함수(괄호는 t-value)

$$\Pi_t = 84.958 + 0.602I_t - 0.044E_t - 0.169R_t + \epsilon_{2t}$$

(16.59) (8.71) (-11.99) (-7.10)

- 단기 추정식(괄호는 t-value)

$$\begin{aligned} \Delta \Pi_t = & -0.05 + 1.409\Delta I_t - 0.02\Delta E_t - 0.141\Delta R_{t-1}^+ - 0.219\epsilon_{2t-1} \\ & (-0.13) \quad (3.71) \quad (-2.85) \quad (-2.01) \quad (-4.24) \\ & - 2.235Jan + 2.63Apr + v_{2t} \\ & (-2.52) \quad (2.66) \end{aligned}$$

Π_t : t기 채산성 실적, I_t : t기 한국 경기동행지수,

$$\Delta \Pi_t = \Pi_t - \Pi_{t-1}, \quad \Delta I_t = I_t - I_{t-1},$$

$$\Delta R_t^+ = R_t - R_{t-1} \quad (\text{if } R_t - R_{t-1} > 0 \text{ otherwise } R_t^+ = 0),$$

$$\Delta R_t^- = -(R_t - R_{t-1}) \quad (\text{if } R_t - R_{t-1} < 0 \text{ otherwise } R_t^- = 0),$$

③ 소비자물가 함수

- 장기균형 함수(괄호는 t-value)

$$\begin{aligned} P_t = & 56.919 + 0.00357RR_t + \epsilon_{3t} \\ & (53.86) \quad (31.21) \end{aligned}$$

- 단기 추정식(괄호는 t-value)

$$\begin{aligned} \Delta P_t = & 0.165 + 0.2\Delta P_{t-1} - 0.266\Delta P_{t-2} + 0.00005RR_t^+ + 0.00004\Delta RR_t^- \\ & (3.05) \quad (3.19) \quad (-4.50) \quad (3.44) \quad (3.68) \\ & + 0.00005\Delta RR_{t-1}^+ - 0.00932\epsilon_{3t} + v_{3t} \\ & (3.32) \quad (-1.58) \end{aligned}$$

P_t : t기 소비자물가, $RR_t = R_t \cdot E_t$: t기 원화환산 원자재가격지수,

$$\Delta P_t = P_t - P_{t-1},$$

$$\Delta RR_t^+ = RR_t - RR_{t-1} \quad (\text{if } RR_t - RR_{t-1} > 0 \text{ otherwise } RR_t^+ = 0),$$

$$\Delta RR_t^- = -(RR_t - RR_{t-1}) \quad (\text{if } RR_t - RR_{t-1} < 0 \text{ otherwise } RR_t^- = 0)$$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구 분		2006	2007	2008 ^P	2009 ^P				연간	
					1/4	2/4	3/4	4/4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5.2	5.1	2.3	-4.3	-2.2	1.0	6.0	0.2	
	최종소비지출 (%)	5.1	5.1	2.0	-2.0	0.7	1.7	4.7	1.3	
	민간소비 (%)	4.7	5.1	1.3	-4.4	-1.0	0.7	5.8	0.2	
	총고정자본형성 (%)	3.4	4.2	-1.9	-7.4	-2.3	0.4	7.1	-0.2	
	건설투자 (%)	0.5	1.4	-2.8	2.8	5.1	4.4	5.0	4.4	
	설비투자 (%)	8.2	9.3	-1.0	-23.1	-17.3	-7.0	13.3	-9.1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	54	59	-64	86	132	103	101	421	
	통관기준	무역수지 (억 \$)	161	146	-133	30	170	102	124	426
		수출 (억 \$)	3,255	3,715	4,220	744	907	950	1,046	3,646
		증감률 (%)	(14.4)	(14.1)	(13.6)	(-25.2)	(-20.8)	(-17.4)	(12.3)	(-13.6)
		수입 (억 \$)	3,094	3,568	4,353	714	737	848	921	3,221
증감률 (%)	(18.4)	(15.3)	(22.0)	(-32.7)	(-35.8)	(-31.0)	(0.7)	(-26.0)		
소비자물가 상승률 (%)		2.2	2.5	4.7	3.9	2.8	2.0	2.3	2.8	
실업률 (%)		3.5	3.2	3.0	3.8	3.8	3.6	3.6	3.7	
국제유가(평균, Dubai, \$/배럴)		62	68	94	44	59	68	75	62	
원/달러 환율 (평균, 원)		956	929	1,103	1,418	1,286	1,239	1,176	1,280	

주: 1) P(Preliminary)는 잠정실적치, E(Expectation)는 전망치

2) 국민계정 2008년 및 2009년 수치는 2010. 3. 26. 한은 보도자료 결과를 반영.